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승효상



BC 6세기에 중국에 살았던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책을 저술하며 동양사상의 형성에 막대한 공헌을 하였다.

의 정적으로 삼아 골몰하는데...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그 일들에 참여하게 되니 건축가인 나로서는 반갑기 짝이 없는 일이다.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

제 진정한 디자인의 실상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 분철에 몰두하고 몇 가지 세련된 집기의 설치로 디자인이 다 되었다고 우기는 게 그렇다.

디자인은 19세기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형성된 대량의 공업 생산에 근거해서 세계 시장 속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제품이나 오브제를 제조하여 배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결국 이는 근대성의 자각을 이룬 20세기의 미학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구심점이 되었다. 디자인이란 그 자체로서 근대를 상징했으며, 그 공급자와 디자이너

수의 특별함이 우선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디자인의 유효기간도 지극히 단축되어 매일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디자인 오브제가 가졌던 전통적 권위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총감독 직을 작년에 위촉받아 그 주제를 정하면서 노자의 도덕경을 다시 들추었다. 현상에 대한 의문이 들 때면 본질로 회귀하는 습성 때문이며, 환경이 변할 때 그 근본을 다시 묻는 것은 그 변화의 정체를 모른 채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움켜질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다.

노자의 도(道)를 그림이나 디자인을 뜻하는 다른 한자인 圖로 바꾸어 '圖可圖非常圖'로 주제를 정하였다. '디자인이라고 일컫는 디자인이 다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도 이만저만하게 바뀐 게 아니다.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환경으로 디자인은 전문적 영역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누구나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된 시대에, 공급자 편이대로만 생산하는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어느 장소에서나 유효했던 디자인이 특별한 장소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의 과위는 대단한 권력이 되었다. 제품의 실질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그 이름만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소위 명품들이 그려진다.

노자의 도(道)를 그림이나 디자인을 뜻하는 다른 한자인 圖로 바꾸어 '圖可圖非常圖'로 주제를 정하였다. '디자인이라고 일컫는 디자인이 다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뜻이 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 정치권 언제까지 '사분오열' 할 것인가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대척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등 현안사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 조정, 구 전남도청 별관 문제 등을 놓고 반목을 거듭하면서 되레 갈등만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광주시 동구의 인구 하한선 붕괴로 인한 구간 경제조정 문제는 북구 갑의 강기정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광주시가 유치위원회까지 꾸린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타지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정책의총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는데도 이 지역 일부 의원들이 그러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다.

본보가 이달 초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57.1%가 차기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8명 중 5명의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원들과 공동 보조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대구·경북 의원들 역시 산·학·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지역의

이러한 현안들은 지역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도 해결하기 어려운 관에 정치적 이해 관계에 매달려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사분오열하고 있으니 지역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끝없는 MB '인사 실패' 국민은 안중에 없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2000년 감사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 예다. 민심을 도외시한 채 '내 사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특정 지역 및 학연 편중,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 후보자의 사퇴를 바라보는 민심은 허탈과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때마다 내정·자력 및 도덕성 논란-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인사 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물며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 고위직 인사는 무말뚨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거둬들이는 인사실책의 근본 원인을 직시해 개선하고, 책임질 인물은 마땅히 포착하는 것이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해법임을 알아야 한다.

MB 인사의 잇단 오판은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근본 원인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탈세, 논문 조작 혐의 등 도덕성 논란이 그 대표적

인사실책의 근본 원인을 직시해 개선하고, 책임질 인물은 마땅히 포착하는 것이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해법임을 알아야 한다. 정도(正道)와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를 개선하지 않고 선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의료 칼럼

주종대



겨울철 따뜻한 곳만 들어가면 어김없이 안경에 끼는 성에. 거의 매번 반복되다보니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다.

인 등의 레이저가 있다. 그 중 아마리시라는 빔 사이즈가 0.54나노미터로 가장 작아 더욱 정밀하고 섬세한 각막절삭이 가능. '안백기술 제7세대 엑시머 레이저'라 불리고 있다.

또한 아마리시스는 안구의 상하, 좌우, 회전, 회전 등 6차원 안구추적으로 복잡한 운동범위를 모두 추적할 수 있어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안정적 수술을 할 수 있다.

안경과 이별하기

착용하는 경우 안경이 고글에 눌러 통증을 유발하거나 자칫 충돌로 인한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렌즈는 안구가 쉽게 건조해져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한다.

무엇보다 시력교정술은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의료진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최신 장비를 갖추고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수술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기고

서성필



제3순환도로는 광주시를 중심 축으로 담양군과 장성군, 나주시, 화순군과 연계되는 광역교통망이다.

같은 밀집형에서 좀 더 쾌적하고 여유 있는 전원생활형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전원생활형 단지의 필수조건은 의류·소형·교육 면에서 대도시 중심과의 접근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광주시에서 시행중인 호남고속도로 동림 분기점과 장성~담양 간 북광주 나들목을 연결하는 시가지 도로가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

셋째, 상무 신도시, 동림·북광주 나들목을 함께 상무 신도시에서 동림·북광주 나들목이 연결될 경우 상무~동림~북광주 구간 시가지 도로가 광주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제3순환도로와 연계한 광주시 발전 방향

림~북광주 구간 시가지 도로가 광주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전주에서 오는 차량이 광주에 진입할 때 기존 호남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 장성~담양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진입함으로써 접근성 향상 및 이용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의 절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으로 조성한다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최상의 도시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본다. 넷째, 현재까지 토지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광범위한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가격이 높다면 개발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다.

여성 금연 상담·클리닉 활성화 정부·지자체가 나서야. 담배는 남녀 불문하고 모두에게 해롭지만 특히나 여성들에게는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無等鼓

예로부터 토끼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이미지로 투영된다. 프랑스 혁명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귀 큰 토끼는 남의 말을 잘 듣고 평화를 좋아하는 선(善)의 상징이다'고 했다.

화적 위기도 시한폭탄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교토삼굴'의 토끼가 돼야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

교토삼굴

교토삼굴(交兎三窟)은 교토삼굴(交兎三窟)로 불리는데 이 구절은 '영민한 토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굴을 세개나 파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사전 대비가 충분하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호황 절정기로 11.5%의 고성장을 구가했고, 1999년에는 외환위기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11년만에 두 자릿 성장인 10.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光日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